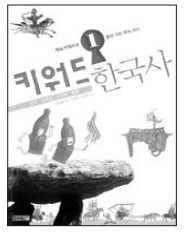


[ 북 스 ]

어린이 책꽂이



▲키워드 한국사 1,2=역사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역사개념과 인물, 사건, 생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키워드를 뽑아 우리 역사를 좀 더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게 했다. 1권에서는 선사시대부터 고조선, 부여, 그리고 고구려, 백제까지의 역사를 2권에서는 신라와 가야, 발해를 다루고 있다. (사계절·각권 1만800원)



▲천재 아빠가 수학을 싫어하는 딸에게 들려주는 수학편지=수학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딸 로라에게 수학자 드니 게즈가 수학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책. 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소재나 주제를 바탕으로 수학을 쉽게 설명하였다. 수학기호부터 자연수, 분수, 대수학까지를 재미있게 알려 준다. (일출봉·1만2천700원)



▲응서해, 테오=사고로 형을 잃은 소년인 슬픔을 딛고, 세상을 향해 화해와 용서의 손을 내미는 이야기. 테오의 형은 어느 날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테오는 물론 가족 모두 깊은 슬픔에 빠진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테오에게 사고를 낸 아저씨를 만나러 가라고 한다. 테오는 아저씨를 만나고 싶지 않다. (어린이작가정신·8천원)



▲닥터 콩치, 닥터 콩치=제2회 웅진주니어 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박성연씨의 작품이다. 잔소리·공부·속제·과잉보호에 몸살이 난 아이들을 즐겁게 치료하는 문어 병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닥터 콩치의 재치 넘치는 진단과 기발한 병이름을 통해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고민을 풍자적으로 그렸다. (웅진주니어·8천원)



▲글쓰기 걱정, 뭐!=20여 년간 신문기자로 활동하며 논술교육 전문가로 일해 온 김태수씨가 쓴 글쓰기 교육서다. 글쓰기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아이들, 글을 좀 더 잘 쓰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추천할만한 책이다. '글쓰기는 즐겁다'는 편한 말을 하기보다는 글 쓰는 데 필요한 진짜 정보를 담았다. (시공주니어·1만500원)



▲똑똑한 비보 대통령 노무현=지난달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배우는 '좋은 사람으로 자라기 위한 다섯 가지 길'을 소개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과 지혜가 가득한 생애를 통해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야 할지 일깨우는 책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길을 안내한다. (소울·1만원)



▲선생님, 나만 믿어요='동화로 배우는 학교 생활' 시리즈 제2권. 재미있는 동화와 그림을 통해 학교를 친숙하게 느끼고 학교생활을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공부, 급식, 친구, 선생님 등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며 그 해결책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글답어린이·9천원)

▲하늘목장=제16회 MBC 창작동화대상 당선작. 귀농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족 간의 갈등과 목장생활을 소재로 한 동화다. 목장을 차린 아버지를 따라 시골로 내려온 주인공은 어느 날부터 잦은 '공위'와 교감이 이루어져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금성출판사·1만원)

명화속에 등장하는 여인의 보석들

그림에서 보석을 읽다

원종욱 지음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림'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엔 '보석'이다. 그림 읽기에 나선 이는 독특하게도 현지 화학과 교수다. 화학자인 원종욱(세종대) 교수가 펴낸 '그림에서 보석을 읽다'는 세계적인 명화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보석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그림'에서 이야기의 실타래를 풀어나고, 영화·역사적 사건 등 다양한 장르로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간다.

저자는 '보석'을 '화학의 꽃'이라고 칭한다. 다이아몬드나 연필, 숯 모두 탄소라는 하나의 원소로 만들어진 화학물질이지만 단단한 다이아몬드도 재로 변할 수 있고 흑연으로부터 영롱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화학 반응이자 화학의 원리라고 설명한다.

저자가 그림 읽기를 풀어가는 키워드는 '탄생'이다. 자신의 탄생식을 갖고 있으면 행운이 온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이어져왔고, 탄생식을 지니는 품종은 18세기 폴란드에서부터 시작했다.

베르메르의 유명한 그림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1665년작)를 보자. 액션 소설과 영화로도 만들어져 화제를 모은 이 작품의 주인공

공은 작품 제목처럼 '진주 귀고리'를 하고 있다. 순수하게도, 뇌쇄적으로도 보이는 아름다운 얼굴의 소녀가 등장하는 이 그림에서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커다란 진주다.

6월의 탄생석인 진주는 또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이삭이 순결한 리브카에게 사랑의 증거로 선물한 보석이기도 하다.

'세기의 미녀' 클레오파트라 역시 '진주'와 뿔 수 없는 인물이다. 로마 실권자 안토니우스를 유혹하리라 마음 먹은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화려한 만찬'에 초대한다. 하지만 식탁엔 식초가 담긴 2개의 잔만 달려 놓여있을 뿐이다. 실망한 안토니우스를 보던 클레오파트라는 갑자기 커다란 진주 귀고리를 술잔에 넣고 손가락을 저어 녹기를 기다린 후 단숨에 마셔버린다. 15개 나라를 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전해지는 또 하나의 진주 귀고리를 안토니우스의 잔에 넣으려 하자 그는 황급히 제지하며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책에서는 또 다른 보석인 에메랄드(5월)는 나폴레옹과 조세핀의 사랑의 징표였다. 귀족 남자들의 장식품이었던 루비(7월), 리차드 버튼이 엘리자베스스테일러에게 건넨 존 70캐럿 짜리 다이아몬드(4월), 러시아 황실의 자존심이었던 사파이어(9월) 등 다양한 보석을 만날 수 있다.

각 장의 말미에는 각각의 보석에 대한 특성과 산지, 종류 등 자세한 정보를 실었다.

윙클러판으로 제작된 이 책의 미덕은 수백장의 사진들이다. 다비드의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에 등장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서 눈길을 끄는 토파즈 리본 장식, 라파엘로의 '유니콘을 안고 있는 여인'에 등장하는 루비 펜던트 등 화려한



베르메르 작 '진주 귀고리를 한 소녀'(1665년).

보석이 돋보이는 명화를 보는 게 즐겁다. 특히 영국 왕실에 대대로 내려오는 사파이어 등 100여장이 넘는 화려한 실물 보석 사진이 눈을 행복하게 한다. (이디디미디어·1만6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약술·약떡 등 中 황실의 보양식

5천년 내력의 중국황실 건강법

자오양 지음



중국농업대학과 중국인민대학 겸임교수이자 중국농촌정책연구소 센터 비서장으로 재직 중인 자오양이 쓰고 한국 중국사 전공자들이 번역한 '5천년 내력의 중국 황실 건강법'은 부제 '어의에게 듣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고대 진시황부터 청말의 서태후에 이르기까지 역대 중국 황실에 내려오는 보양법을 흥미진진하게 정리했다.

89세를 산 장수의 황제 건륭제의 장수 비결은 운동과 약술, 그리고 약떡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운동을 좋아한 그는 활쏘기와 사냥, 기마 등으로 체력을 유지했다. 그는 또 '팔진고'라는 약떡을 매일 4~6조각씩 먹어 위를 건강하게 했다.

영원한 젊음을 꿈꾸는 무척천은 어떤 처방을 받았을까? 그녀는 열병이 이복초를 발라 윤기를 유지하고 천연 약재로 만든 껍을 발라 주름을 없앴다고 한다.

의학에 정통했던 강희제는 부스럼을 앓는 신하에게 지금의 온천수에 해당하는 화당 요법을 추천해 병을 고쳐주었다.

중간중간 양념처럼 소개돼 있는 '양생(養生) 비결'을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하루에 대추를 세 알 먹으면 늙지 않고, 신선한 미나리즙을 매일 마시면 피가 맑아지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100세를 살 수 있다" 등 현대에도 활용될만한 정보들이다. (실림·1만3천8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책에 얽힌 자서전적 이야기

순례자의 책

김이경 지음



'책'이 소설의 소재로 등장했다. 출판사 편집 주간에 지낸 김이경씨가 쓴 소설집 '순례자의 책'은 책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낸 10편의 단편 모음집이다.

오랫동안 책과 함께 살아온 작가의 이력 덕인 책과 관련한 이야기가 참 재미있다. 기발한 상상이 함께 어우러져 책은 더욱 흥미롭다.

'저승은 커다란 도서관'은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이 도서관이라는 상상에서 출발한다.

수많은 장서로 둘러싸인 저승의 도서관에 도착한 이들이 할 일은 자서전을 쓰는 일이다.

자서전이야말로 죽은 사람의 영원한 집이자, 존재 증명이라는 설명이 뒤따라,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주인공의 어머니가 쓴 '자서전'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

'디큐멘터리 책의 적을 찾아서'는 세계 책의 날 행사가 열린 가상의 도시 토티리움을 배경으로 역사상 가장 최악의 '책의 적'을 뽑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고, '비블리오마니아의 붉은 도서관'은 대저택을 사람의 피부로 책을 쓴 '인피 장정' 등 다양한 재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각 작품 말미에 '소설 속 책 이야기'를 따로 실었다.

(뿌리와이리·1만 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길을 가면서 세상과 소통한다

길 위의 풍경

김병용 지음



"길을 따라 드문드문 꽃핀자리에 도란 도란 사람의 마음이 들어선다. 거기서 사 람들이 또 피고 진다"

소설가 김병용씨가 여행을 하며 길 위에서 만난 풍경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길 위의 풍경'을 출간했다.

책은 흥미로운 고찰에 얽힌 이야기에서부터 이땅에 살아 숨쉬는 선조의 흔적을 인문학적 감성을 덧대 편안하게 그리고 있다.

저자는 자신과 세상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바로 '길'이라고 강조하며 길을 따라 여행하며 느낀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나열한다.

"길가의 끝은 어디일까? 누군가는 말했다. 걸어온 길을 납득하게 될 때까지 인간은 걷기를 계속하는 것이라고."(40쪽)

문학이 흐르는 지리산과 섬진강 사이를 시작으로 선암사와 송광사 가는 길, 바다를 향해 가는 2번 국도, 백제의 역사가 숨쉬는 길, 담벽을 따라 골목으로 거니는 길 등 대한민국 길의 모습과 그곳에서 발견한 새로운 사실을 서정적으로 전한다.

보통의 여행서는 달리 책에는 특별한 여행 정보가 없다. 다만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여행이 주는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진솔함과 감동이 돋보인다.

(엘도라도·1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featur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including land parcels and buildings in various area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국민공인중개사' (National Public Real Estate Broker) listing multiple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including land parcels and build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번영 공인중개사' (Byeong Public Real Estate Broker)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including land parcels and build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수완지구' (Suwan District) featur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including land parcels and build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E+ Public Real Estate Broker)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al, including land parcels and buildings.